

‘대우축산’ - 송호섭 농가

좋은 돼지고기 생산자의 외길을 고집하는 양돈인

제주지역본부부장 권기백

제주도 안라산 기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에 자리잡은 대우축산(대표 송호섭)은 대들이어 싫고 야망에 찬 한 축산인이 미지탐을 홀리면서 모든 150㎡ 비육돈 2,000여두 농장으로 제주도의 아늑담 고개뚫한 환경처럼 푸른꿈이나 날이영달이가고 있는 양돈농장이다.

소비자 지향적인 사양관리

송대표는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 준수를 말하면서, 종돈 통일, 사양 초기부터 암, 수의 엄격한 구별, 적절한 시기의 수태지 거세 등을 꼽았다. 또한, 생산자가 아무리 ‘맛좋은 돼지고기’라고 해도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사랑 받을 수가 없다며 계절별로 사양방법을 달리해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체중과 동지방 두께의 조절을 위하여 비육돈 후기사료 급여기간을 다른 계절에 비해 짧게 하고 있다. 지난 2006년의 폐지등급판정실적은 규격돈 출

현율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숫돼지의 미율이 0.2%를 밑돌아 얼마나 돼지 관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계획·포부 그리고 희망

한·미 FTA협정 타결 등으로 국내 1차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 해도,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도 우리 축산농가는 잘 극복했다면, 결국 어떤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송대표... 마지막으로, 생산분야의 ‘폐지사육기능장’ 같은 것이 있다면 되고 싶다는, 등급정보 및 유의한 축산관련 소식을 전 해주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2006년 등급판정결과>

구분	A	B	C	D	계
두수	1,353	605	201	80	2,239
출현율(%)	60.4	27.0	9.0	3.6	100

